

본 자료는 10월 4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통신사 및 온라인은 3일(월) 오전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>

배포일시	2016. 9. 29 (목)	담당부서	산업통상분석실
담당자	윤우진 선임연구위원 044-287-3101		

## 국내 주력산업, 제조업 혁신을 통한 성장잠재력 갖춰 -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결과 -

- 선진국 산업, 기술·지식 중심의 고부가가치 활동으로 고도화하는 추세
- 구조조정기에 있는 국내 주력산업의 성장잠재력은 높은 것으로 판단
- 순소득 기여율, 분석 결과 전기전자산업에서 미국·일본·독일·한국은 1보다 크고, 중국은 1보다 작은 수준
- 국내 핵심산업이 '속 빈 강정'이라는 주장은 지나친 비관론
- 우리 기업들은 핵심역량의 강화와 상시적인 구조조정에 더욱 노력해야

### □ 글로벌 가치사슬, 무한경쟁의 지평 열어

- 2000년대 들어 중국의 세계공장화로 글로벌 가치사슬이 확대됨에 따라 가치사슬의 선점을 위한 각국의 경쟁 격화
  - 세계 선진기업들은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 설계, 디자인, 엔지니어링, 핵심기술이나 부품·소재 등에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추구
-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벌어지는 주요 기업 간의 경쟁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추종자가 아닌 선도자가 되려는 기업들의 노력이 집약
  -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하는 애플과 삼성은 제품의 스마트화와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가치사슬의 프론티어를 넓혀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노력
  - 스마트폰 가치사슬에서 조립생산에만 참여하던 중국 기업들은 점차 자체 브랜드 개발과 생산을 통해 '속 빈 강정'에서 벗어나는 노력을 가속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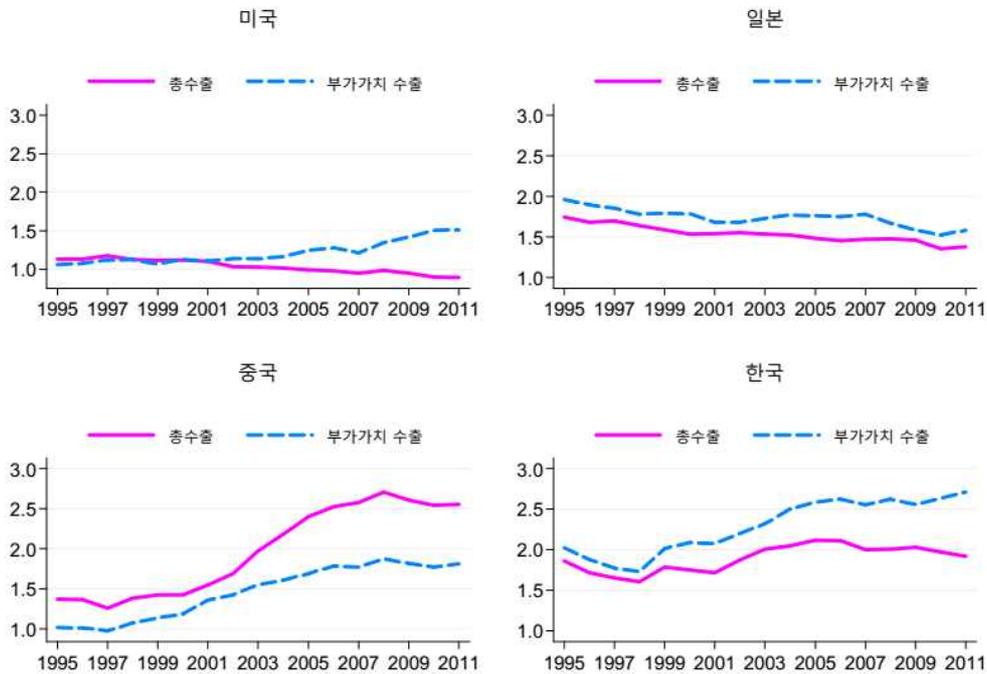
### □ 산업경쟁력, 가치사슬 경쟁력으로 평가해야

- 산업경쟁력은 무엇을 얼마나 많이 수출하느냐 보다 가치사슬에서 얼마나 많

은 부가가치를 얻고 있는가가 더욱 중요

- 글로벌 가치사슬이 가장 발달한 전기전자산업에서 중국은 총수출액으로 평가한 경쟁력은 높지만 부가가치로 계산한 경쟁력은 현저하게 낮은 수준
- 반면에 한국·미국·일본은 부가가치 수출 경쟁력이 총수출 경쟁력에 비하여 더 높아 수출구조가 외형보다는 내실에 충실하다는 의미

<그림> 전기전자산업에서 한·미·일·중의 경쟁력(RCA)<sup>1)</sup> 지수 추이  
(총수출 vs. 부가가치 수출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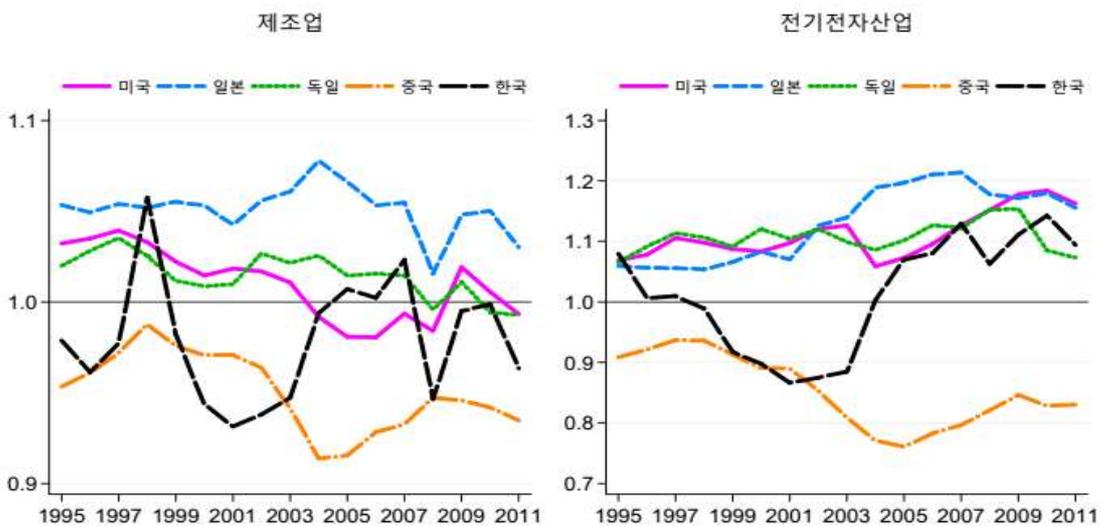
주: 1) RCA 지수는 어느 국가의 수출에서 해당산업이 차지하는 점유율을 세계 전체 수출에서 해당산업이 차지하는 점유율로 나눈 수치로 이 지수가 1보다 클수록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

□ 한국 산업, '속 빈 강정론'은 지나친 비관론

- 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순소득 기여율로 판단 가능
  - 순소득 기여율이 1보다 크면 해당산업은 가치사슬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가치 거래에서 실속을 챙기고 있다는 의미
  - \* 순소득 기여율: 글로벌 가치사슬 활동을 통해 해당산업으로 들어오는 부가가치를 해당산업에서 나가는 부가가치로 나눈 지표
- 제조업 가치사슬의 순소득 기여율 추이를 비교해 보면 일본은 1보다 큰 반면, 중국은 1보다 작고 미국·독일·한국은 1에 근접한 수준

- 특히, 일본 산업의 순소득 기여율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 세계 제조업 가치사슬에서는 매우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
- 전기전자산업에서의 순소득 기여율은 미국·일본·독일과 한국이 1보다 큰 반면, 중국은 1보다 작은 수준
- 이는 전기전자산업 가치사슬에서 생산활동에 특화된 중국보다는 기술·지식집약적인 활동에 특화된 한국이나 미국·일본·독일이 실속을 챙기고 있다는 의미
- 한국의 순소득 기여율은 제조업 가치사슬에서 1에 근접하고 전기전자 가치사슬에서는 1보다 커서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비교적 양호한 수익구조를 유지
- 따라서, 한국 주력산업이 '속 빈 강정'이라는 비판은 모든 제조업이나 전기전자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지나치게 비관적인 견해

<그림> 한국과 주요 경쟁국의 순소득 기여율 추이



□ 한국 산업, 무한경쟁에 대비하는 자세 필요

- 제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아래서 선진국 산업은 '공장 없는 제조업'과 서비스 혁명을 통해 기술·지식 중심의 고부가가치 활동으로 고도화하는 추세
- 선진국들은 '공장 없는 제조업'을 중심으로 다국적화를 통해 독점적 이윤을 확보하거나, 작지만 수익성이 강한 기업들이 경쟁력의 핵심으로 등장
- 구조조정기에 있는 국내 주력산업은 외환위기 이후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제조업 혁신에 다시 도전한다면 성장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

- 한국 산업이 '속 빈 강정'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 기업들은 핵심역량의 강화와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최적의 사업구조를 유지할 필요
- 정부는 가치사슬 경쟁력 강화와 사전적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제조업 혁신형 R&D 투자를 늘리고 M&A를 선제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

※ 따로 붙임 : KIET 산업경제 “주력산업, ‘속 빈 강정론’의 재음미”